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21/30℃ 목포 21/27℃ 여수 21/27℃
단기 4343년 (음력 6월 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25호 1판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1만명 몰린 채용박람회 1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산단 입주업체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면접에 앞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이날 박람회에는 1만명의 구직자들이 몰렸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선정 '600억 딜레마'

화정·염주 주공 분양 수익 미지수…시설투자 시비 충당 우려

내년초 부지 최종 확정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송귀근 행정부시장, 강계두 경제부시장, 김영진 광주시도시공사사장, 실무진과 함께 광주U대회 체육시설 및 선수촌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선수촌 부지 검토'를 도시공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화정 주공 ▲염주 주공 ▲인근 개발제한구역 ▲기타지역 등 선수촌으로 부상한 곳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광주시가 광주U대회 시설 설치비 등으로 잠정추정한 예산 중 선수촌 분양을 통해 60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데다 거론되는 부지마다 장·단점이 혼재해 최종 부지 선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수촌 분양해 600억 벌 수 있나=광주U대회의 체육시설 및 선수촌은 적어도 2015년 상반기까지 정비 및 조성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광주U대회 시설 설치·이용 등에 대한 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말 중간보고, 내년 상반기 최종보고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시설투자에 4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국비는 3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순수 시비 24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애초 시는 이 중 600억원을 2500세대 규모의 선수촌을 분양해 충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미분양사태 속에 목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강 시장의 도심재생 방침에 따라 급속히 부상한 화정·염주주공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시세가 급등한데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주민들과 수익을 나눠야 하므로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선수촌 분양수익이 저조하면 시비로 대체해야 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다.

◇2500세대 제때 건립할 수 있나=화정·염주주공 주민들은 각 아파트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선수촌 부지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82년 말 준공된 2900세대의 광주시 서구 화정 주공은 정비구역지정·재건축조합설립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끝내 신속하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지난 85년 초 준공된 염주 주공(1118세대)은 올 들어 구역지정을 신청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전임 시장이 선수촌 부지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주민과의 마찰이나 그로 인한 사업 지체, 수익 감소 등이 우려되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개발지의 경우 신속한 사업 착수 및 수익 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강 시장이 약속한 '도심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경기장과의 거리가 자동차로 5분이어야 하는 조건은 있으나, 선수들이 셔틀버스로 각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수촌 부지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무안~김포 항공노선 끊기고 목포~부산 열차노선 폐쇄

100일 남은 F1 관광객 유치 차질

대회기간 교통·숙박난 해소 등 과제 산적

16일로 개막을 꼭 100일 앞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있다. 세계 3대 스포츠로 국내에선 처음 열리는 '빅 이벤트'인데다, 향후 7년간 매년 개최되는 만큼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교통분산과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우려돼 대회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교통난에 관광객 유치 '빨간불'=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의 최대 두통거리 중 하나는 교통이다. 현재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수요 분산이 버거운 상황에서 최근 항공·철도노선이 잇따라 중단됐기 때문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운항중인 무안~김포 노선이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 이 노선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유일한 국내 정기노선으로, 조직위는 당초 F1 대회를 앞두고 한국을 찾을 외국인 단체 관광객 및 수도권 고객들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정기노선 외에 임시 전세기 운항 계획까지 추가로 세워놓은 상태다. 따라서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 수송 대책에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목포~부산간 열차편 중단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열차인 목포와 부산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지난 5일부터 중단되면서 부산에서 목포로 철도편으로 이동한 뒤 버스로 환승, F1 대회를 관람하는 길이 사라지게 된 것.

가뜩이나 대회 기간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이 많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항공·철도노선까지 끊겨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조직위가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을 이용, 영산강 하구언을 거쳐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분산하기 위해 세워놓았던 무영대교 임시 개통도 올 대회기간 내에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불편한 잠자리=일반 관광객들이 겪을 불편한 잠자리도 고민거리다.

조직위는 대회 관계자 4800여명의 숙박을 위해 경주장 특급호텔 등 인근 호텔과 모텔 등 3216실을 확보했다. 목포의 경우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된 모텔 64개소가 대회관계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들의 경우 등급이 낮은 숙박시설을 감수하거나 바가지 요금 등 불편을 겪을 우려가 높다.

이외 경주장 건설에 들어가는 국비(352억원)를 조기에 확보해야 대회의 성공 개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책실장 백용호 정무수석 정진석

청와대 참모진 인사…사회통합수석 박인주

백용호

정진석

박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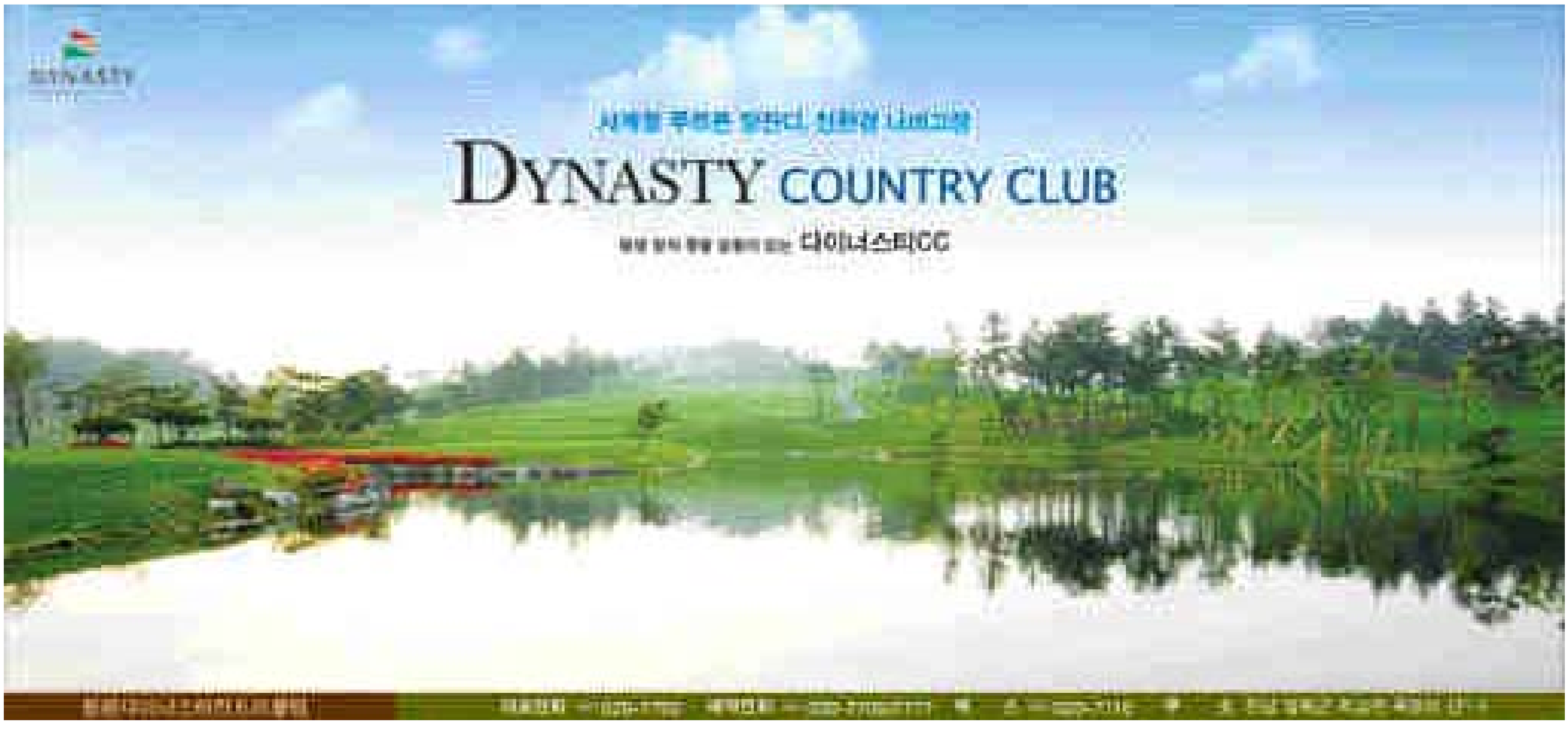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 정무수석에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사회통합수석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 대변인에 김희정 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했다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밝혔다.

백 정책실장 내정자(54)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광주서중과 전북 익산의 남성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이명박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청장을 맡아 국세청 개혁을 이끌었다.

정 정무수석 내정자(50)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언론인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사회통합수석 내정자(60)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흥사단 이사장 등 시민단체, 교육계, 정계 등에서 활동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고 사고의 유연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변인 내정자(39)는 부산 출신으로 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에서 당선,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로 활약했다.

한편, 홍보수석에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석과 비서관의 중간급인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정책지원관과 비서관급인 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오는 15~16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